**말하기의 정의**

인간의 언어 활동을 말하기와 듣기, 읽기와 쓰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본다면, 말하기 와 듣기는 음성언어를 매개로 하고 읽기와 쓰기는 문자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. 인 간이 상호 간에 이해를 수립하거나 영향을 끼치려는 과정이나 행위인 의사소통은 이러한 음 성언어와 문자언어로 이루어진 언어적인 요소와 더불어 몸짓, 음성, 억양, 표정 등의 비언어 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. 위의 네 가지 언어 활동 영역을 기능을 기준 으로 나누어 보면,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을 담당하며 듣기와 읽기는 이해를 담당하는 기능 으로 볼 수 있다. 그러나 구두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하기는 듣기를 전제로 하며 문자를 통 한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역시 쓰기는 읽기를 전제로 하므로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각 기능 별 연관성과 밀접성이 고려되어야 하겠다.

인간의 의사소통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 말하기는 음성언어를 사용해서 자신 의 감정, 생각, 정보 등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기능이다. 이러한 말하기는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담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상호교섭 속에서 메시지의 의미가 계속해서 창조되고 재정의되며 협상 가능해지므로 의미협상(negotiation of meaning)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 며, 또한 담화 참여자들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정보의 공백(information-gap)을 메워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.

**말하기 교육의 중요성**

외국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에 있고,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이라고 하겠다.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 역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성공적으로 전달 하는 것이라고 볼 때, 한국어 교육에 있\_어서 말하기 교육은 학습자가 한국어 회-법과 문화에 맞게 자신의 의사를 구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.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말하기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 이라고 할 수 있다.

말하기는 일상적인 언어 생활의 사용도 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, 랭킨(Rankin)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생활에서 의사소통은 45%가 듣기, 30%가 말하기, 16%가 읽기, 9% 가 쓰기에 의존한다고 하였다(이미혜, 2005 재인용). 듣기와 말하기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 는 것으로 보아도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말하기와 듣기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 한 비중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. 최근 들어 휴대용 개인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급의 확산으 로 인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하는 빈 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.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이러한 문자 메시지는 구어를 음성이 아 닌 문자로 나타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 쓰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역시 말하기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.

또 말하기는 일상생활의 대화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의 토론이나 연구 발표까지도 수행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언어 활동은 말하기가 사회 활동 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함을 나 타낸다（손연자, 1999）.

이처럼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도 자신감 있고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겠다.

**출처**

서울대학교, 한국어문학연구소, 서울대학교, 국어교육연구소, 서울대학교, & 언어교육원. (2017).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(3판 ed.). 파주 :: 아카넷.